

서호인의 '소설처럼'



윤달의 입을거리

- 전옥진 '선릉과 정릉'

시간 참 빠르다는 말이 참 우습다. 양자역학이 아닌 현대물리학이 하는 걸 따지지 않고 그저 섣된 인간의 세계에서 시간은 언제나 정확했고, 누구에게나 공평했는...

지금은... 많은 게 바뀌었고, 그 전으로 돌아간 것도 그 전과 달라진 것도 많다. 많은 이가 희생한 채로 시간은 묵묵히 흘러 오늘까지 왔다.

시간에 중점이 있을까? 시간은 순환버스와 같은 것일까? 시간이라는 버스에서 내릴 방법은, 그러니까 벨을 누르고 하차하는 방법은 죽음을 통한 존재의 소멸밖에는 없는 것 같다.

전옥진 시인의 '선릉과 정릉'은 2월에, 그중에서도 윤달에 읽기 좋은 책이다. 이 책은 '시의적절'이라는 시리즈 중 한 권인데, 한 명의 시인이 한 달 동안 하루에 하나의 글을 입을거리로 제공한다.

무덤을 제목으로 하고 산문의 큰 줄기는 '중점 일기'로 잡고 있으니 이 또한 시인의 직관으로서 가능한 연결이라 하겠다. 시인은 "중중 아무 버스에나 올라 노선 종점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는 시간을 '죽이는' 시적 행위일 것이다.

휘둘러나 시간에 겁박당하는 게 아닐까? 시인은 시간의 더께에서 출연한 듯, 양자역학의 세계에라도 들어선 듯 같은 시간간만의 타인과 자신을 다음처럼 겹쳐 보기도 한다.

"어느 가을, 나와 운명이 엮일만한 사람과 나를 포개어 본다." 어느 날 시인은 버스에서 지난날의 인연을 마주한다. 그와의 기억은 사투 드라마틱하다. 쓸쓸하고 외롭다. 다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기에 시인은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선릉과 정릉'은 하루에 한 편씩 읽기 좋은 책이다. 시와 동시와 편지와 에세이와 동화가 알맞게 배치되었다. '시의적절' 시리즈의 책들이 아마도 모두 그러할 텐데, 하루에 한 편씩 읽고 월말을 맞이하면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게 될 것 같은 것이다.

<시인>

의료칼럼

봄철 알레르기 비염



정 휘 수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전문의

해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알레르기성 비염과 일반 코감기를 혼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두 질환은 증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가 중요하다.

일반인으로서의 알레르기성 비염과 코감기를 정확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발병 특징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지만 흔히 특정 계절에만 나타나는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과 일년 동안 계속 진행되는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나눈다.

비염이 발현되면 맑은 콧물이 흐르고, 연속적인 재채기와 코막힘 증상이 나타나고, 눈과 코에 가려움증도 생긴다. 보통 아침에 심하다가 오후가 되면서 진정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코막힘은 대부분 지속된다. 이처럼 오랫동안 코막힘 상태가 계속되면 호흡이 힘들어지면서 두통이 발현되고 심해지면 중이염, 부비동염, 인후염 등이 동반될 수 있다.

한편 알레르기성 비염과 코감기는 원인, 증상, 치료법이 각기 다르므로 정확한 구별이 필요하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알레르기 물질이 원인이지만 코감기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으로 발열, 전신 피로감, 통증, 인후통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다.

피하는 것으로 치료하지만 감기는 휴식만으로도 1주일 이내에 호전이 가능하다.

이처럼 알레르기성 비염은 코감기와 비슷한 증상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일상생활 불편과 함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면 일단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찾아야 한다. 요즘 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가 문제인지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등이 원인인지 애완동물 털, 집먼지 진드기,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 원인 물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린 때부터 생기는 알레르기성 비염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지속되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면역 검사와 알레르기 반응 검사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알레르기성 비염을 코감기로 혼동해 항을 열제를 장기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 약물 중독성 비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社說

선분양 중앙공원 1지구...논란 접고 속도내야

광주 최대 규모 민간공원 특례사업자인 중앙공원 1지구 조성 사업이 오랜 논란 끝에 선포되어 수년 동안 차질을 빚어왔다. 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공사업 성격이 강해 발주처인 광주시의 입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광주시는 민선 7기와 8기 교체 시점에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놓고 오락가락 행정을 한 것도 사실이다. 광주시장이 "선분양 전환에 따른 사업자의 3대 이득을 100%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는 대신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점은 환영할 일이다.

용역 결과에 대해 사업자들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광주시도 '신속·투명·공개' 원칙에 따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5·18 공법단체 파행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지난해 (사)특전사동지회와 함께 추진한 '용서와 화해의 공동선언식'에서 촉발된 5·18 공법단체 파행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월 공법 3단체 가운데 5·18민중화합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파벌 싸움 등 내홍과 재정 비리로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나 자정 능력 부재로 사실상 사태를 내버려 두고 있다.

5·18 부상자회장과 정성국 전 5·18 공로자회장이 지난해 각각 직무 정지와 해임 처분을 받아 현재 두 단체는 회장이 공식적으로 공법단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두 단체의 회장은 직권을 남용해 이사회와 회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지난해 2월 19일 특전사 동지회와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던 점, 국가보훈부 직원과 비공개로 만나 '정용성 역사공원' 설립을 반대한다는 신문 광고를 게재하는 등 회원

명예를 실추했다는 점 등이 인정돼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5·18교육관 민간 위탁 등과 관련해 광주시장과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공동선언식에 반대하는 오월 시민사회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광주 시민사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파행은 급기야 국가기관의 감사로 이어졌고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수행해 온 공법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5·18 부상자회 역시 지난해 9월 '유령 대의원' 문제로 논란이 일었으며 최근 대의원 선거를 다시 치르는 등 내용이 여전하다. 파행 장기화는 조직의 역량 약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앞서 두 단체의 회장은 직권을 남용해 이사회와 회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지난해 2월 19일 특전사 동지회와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던 점, 국가보훈부 직원과 비공개로 만나 '정용성 역사공원' 설립을 반대한다는 신문 광고를 게재하는 등 회원

명예를 실추했다는 점 등이 인정돼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5·18교육관 민간 위탁 등과 관련해 광주시장과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공동선언식에 반대하는 오월 시민사회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광주 시민사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파행은 급기야 국가기관의 감사로 이어졌고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수행해 온 공법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5·18 부상자회 역시 지난해 9월 '유령 대의원' 문제로 논란이 일었으며 최근 대의원 선거를 다시 치르는 등 내용이 여전하다. 파행 장기화는 조직의 역량 약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앞서 두 단체의 회장은 직권을 남용해 이사회와 회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지난해 2월 19일 특전사 동지회와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던 점, 국가보훈부 직원과 비공개로 만나 '정용성 역사공원' 설립을 반대한다는 신문 광고를 게재하는 등 회원

명예를 실추했다는 점 등이 인정돼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5·18교육관 민간 위탁 등과 관련해 광주시장과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공동선언식에 반대하는 오월 시민사회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광주 시민사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파행은 급기야 국가기관의 감사로 이어졌고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수행해 온 공법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기고

일본 보호국화 정책에 맞선 동학선열 서훈해야



박 용 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사건에서 시작되었다. 청일전쟁은 일본의 조선 침략 전쟁이었고 청군 축출 전쟁이었다.

1894년 7월 17일(양력 8월 17일)에 일본 내각은 "일본이 직간접적으로 영구히 또는 장기간 조선을 보호국으로 한다." (보호국화안)라고 의결했다. (무쓰 무네타스, '건건록(建國錄)', 일본 외무성, 1896년) 이날에 일본이 조선 보호국화를 결정했다.

일본은 조선 보호국화 정책을 청일전쟁 전 기간(1894년 7월 23~1895년 3월 17일)에 걸쳐 추진하였다.

첫째로, 보호국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경부·경인간 철도 부설권 및 군용 전신선 관할권 등의 이권을 일본에 넘기려는 '조일 잠정합동조관'의 체결(8월 20일)을 강요하였다.

둘째로, 조선 보호국화 정책에 반대하는 항일 동학 농민혁명 세력을 철저히 탄압하였다. 1894년 9월 29일(양력 10월 27일)에 이토 히로부미 수상(총리대신)이 히로시마 대본영에서 병참총감 가와카미 소로쿠와 상의하여 동학농민군을 "모조리 죽이려"라는 살육 작전을 결정하였다.

셋째로, 주한 특명전권공사로 부임한 이노우에 가오루가 실질적 조선 보호국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재임 기간 그는 식민지 총독처럼 군림하였다. 그는 박영효 중심의 친일 정부를 수립시켰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일제의 보호국화 정책에 맞서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고자 2차 동학농민혁명이 그해 9월에 일어났다. 침략자 일본군과 2차 동학농민혁명군과의 전쟁이 전개되었다.

청일전쟁 연구의 대가인 일본 나라야자대학 나카츠카 야카리 교수는 2차 동학농민혁명이 '조선의 민족독립운동'이고, '동아시아 민족독립운동의 선구'라고 논문과 저서에서 주장하였다.

울미의병 참여자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145명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였다. 울미의병을 능가한 항일 독립운동이 2차 동학농민혁명임에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게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단 한명도 하지 않아, 울미의병 참여자의 서훈과 비교하여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제라도 국가보훈부는 전봉준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를 바란다.

無等鼓

오는 11월 미국의 60번째 대통령 선거는 2020년의 재선이 될 듯하다. 공화당 후보를 뽑는 주요 경선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압승하며, 5개 주에서 모두 승리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은 농어촌의 희생에 공화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41%가 올해 대선의 주요 이슈로 이 민정 정책을 꼽았다.

트럼프는 집권하면 '마가노믹스(MAGAnomics·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를 재가동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가노믹스 가운데 하나가 초강력 이민 억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출생 시민권 부여 제도 폐지, 일부 국가 출신 미국 입국 금지 등 중요 요약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데 있다.

/유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자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법무국 220-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